

정부,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으로, 중동 상황 총력 대응

- 산업부, 중기부 '수출 애로상담 데스크' 협력 강화
- 수출 바우처 긴급 투입 ... 중동 지역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 무보 3.9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 금융위 20.3조원 중동 피해기업 지원

정부는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따른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중동 수출 애로 통합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물류비 지원 확대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물류·에너지·공급망 등 주요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제한적이나, 현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에 따른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 상승 등 물류·공급망 애로가 커지고 있다. 실제 중동 노선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72.3% 급등하는 등 비용 상승 압력이 거세지는 추세다.

또한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선을 상회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과 수출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하방 압력이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 현장의 목소리에 밀착 대응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간 ‘수출 애로상담 데스크’ 협력을 강화한다. 코트라의 ‘중동 상황 긴급대응 데스크’, 무역협회의 ‘수출기업 물류애로 비상대책반’, 전국 15개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간에 중동 현지 정보와 애로 상황을 공유하여, 기업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각 기관의 전문가와 연결되는 ‘통합 지원 체계’를 시행한다.

둘째, 급증하는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수출 바우처’를 긴급 확대 공급한다. 오늘부터 코트라를 통해 공고되는 80억원 규모의 바우처는 국제 운송비는 물론 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중동 현지 발생 지체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고,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도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여 리스크에 노출된 수출 기업을 정밀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중동 상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3.9조원 긴급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원자재 수입보험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위도 중동상황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약 20.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맞춰 수출 애로 해소와 물류 및 유동성 지원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범정부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을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3)
		담당자	사무관	홍경태 (044-203-4022)

1 추진 배경

- 중동 상황 관련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중동 수출기업 지원방안 모색
 - 중동 정세, 에너지 수급, 공급망, 물류 등 분야별 상황 점검 및 정부,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2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3.11(수) 15:00-16:0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석자) 정부, 수출 지원기관, 분야별 전문가, 중동 수출기업 등
 -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주제), 무역국장, 외교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등
 - (지원기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가) 중동 정세, 에너지, 공급망,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 (업계) 수출 애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
- (주요내용) ❶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수출입 영향 전문가 발표
 ❷ 중동 수출 중소·중견 기업 지원방안 논의

< 회의 진행순서(안) >

일 시	주 요 내 용
15:00~15:05 (05')	▶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발언
15:05~15:35 (30')	▶ 분야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발표 (분야별 8분 내외) • 중동 정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에너지 수급 (에너지경제연구원) • 공급망 (코트라 공급망센터, 화학산업협회) • 물류 (LX 판토스)
15:35~16:00 (25')	▶ 자유토론

※ 본부장 모두발언까지 공개